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신용대출 막히자 '무풍지대' 예금담보대출로 몰려

뉴스

4대 시중은행 보유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올 2분기 기준 총 6조 6,049억원으로 집계, 전년동기 대비 4,629억원 늘어난 금액
예금까지 않고도 가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자금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 최근 빗투 열풍과 무관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중

MZ세대 잡은 신한은행…쏠 사용자 절반이 2030

머니투데이

신한은행, 솔(SOL) 월간 실사용자 수 796만명 중 49.50%에 해당하는 394만명이 MZ세대 차지
그간 20대 전용 브랜드를 런칭하는 등 타깃을 분명히 해와… '헤이 영', '모바일 쿠폰 마켓'이 대표적

중신용자 대출 늘리겠다 약속한 '카뱅', 은행보다 비중 낮아…설립 취지 '무색'

경향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가운데 중신용자 비중은 14.9%, 카카오뱅크의 중신용자 비중은 8.5%로 더 낮아…
을 6월 말 계좌 수를 기준으로 중신용자비중은 시중은행 19.9%인 반면, 카카오뱅크는 10%에 불과

전세대출도 막히나… 고승범 "금리 등 유리하다는 지적있어"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가계부채 대책 검토중이라 언급… 전세대출이 금리 등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심 중
취약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데 공감대 형성

의료계 강한 반발…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동'

데일리메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대한의사협회,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발
의협,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고 지적… 정부 관계자는 합의 결렬로 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사 대출 점점 어려워진다… 외국계 생보사도 '담보대출' 중단

머니S

동양생명, 이달 초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등 3개 상품 신규대출 잠정 중단… 판매재개 여부는 불분명
금융당국의 금융권 가계대출 옥죄기를 강화하는 가운데, 향후 보험사를 통한 대출도 어려워지는 경향

대형 증권사, 현지 경쟁력 높아졌다…글로벌 IB 도전 '청신호'

CEO스코어데일리

기존 해외법인 실적 성장과 맞물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 점이 크게 작용
증권사들의 해외진출 확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 자기자본 40%, 개별법인에 대해 자기자본 10%까지 신용공여 가능, 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가능

'이상 과열' 스팩 잔치 끝났나…9월 상장스팩 시초가대비 모두 하락

뉴스1

9월 상장한 4개 스팩의 주가가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쳐… 9월 들어 청약 열기 사그라드는 경향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제8호스팩은 전날 2,090원으로 장 마감… 대신밸런스제10호스팩의 공모주 투자자 수익률은 5.0%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